

K-NU10 포커스
K-NU10 FOCUS
2022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
The First 2022
Higher Education Forum

발간등록번호

11-7000126-000051-08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2022년 06월(통권 제17호)
발행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굿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ate of issue 06/2022 (Vol.17)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04

균형발전 위한 대학 혁신
국가거점국립대학이 앞장서겠습니다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ill take the lead in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K-NU10 포커스 K-NU10 FOCUS

05

거점국립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야
Transforming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into Research-Center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Co-development with Their Communities

08

총장협의회 제안한 지역거점연구중심대학
육성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비교
-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Yoon Seok-yeol'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to Ones Proposed b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10

즉시 실행 가능한 대학정책 해법 2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
국립대학법 제정
Two Immediately Implementable University Policy Solutions
Improving the Public Institution Obligatory Local Talent Recruitment System and Enacting the National University Act

12

국가균형발전 위한 인재육성 중요성
종합학문 바탕의 특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Importance of Nurturing Future Tale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Studies

K-NU10 칼럼 K-NU10 COLUMN

18

국가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 전환 전략
Transition Strategy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K-NU10 뉴스 K-NU10 NEWS

16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많아지도록 환경 만들 계획"
Byung-joon Kim,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veals Prospectus of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Draws More Companies to Local Cities"

18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교수 대학혁신책 제안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Holds its First Regular Meeting in 2022
Professor Jong-young Kim, author of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poses a university innovation plan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2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4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6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8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0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2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34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6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8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40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김동원 Kim, Dongwon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전북대학교 총장
Chairman,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Presidents Association / Presi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균형발전 위한 대학 혁신 국가거점국립대학이 앞장서겠습니다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ill take the lead in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신록의 계절, 코로나19 엔데믹과 완전한 일상회복이 하루 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양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에서도 전적 모험연구와 질적 연구로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국가 교육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소멸 시대에 대학의 기능을 연구, 교육, 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선진국형의 고등교육 체계 구현을 향해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하고, 지역적으로 기능적으로 특화 성장하는 대학 발전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the season turns green, I look forward to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 swift recovery to normalcy. A new administration has begun and they have a strong will for education reform. In hi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Yoon urged “Education reform is an unavoidable task and we equally provide all students with an education that meets the advancements in technology.”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have a tremendous responsibility to lead a balanced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We must nurture talented students with quality education and transition from producing large quantities of research to pursuing pioneering and quality research. And as a result, strive to promote regional innovatio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s education.

In order for these efforts to have a synergistic effect, they need the ful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Particularly in this era of local decline it is critical to enhance the university's role in research, education, community service, and beyond. Modeling after higher education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for universities to develop strategies that involve large-scale support at a national level and build specialization at a local level.

In this spirit,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ill lead innovation. We will not be complacent and meet the demands of social reform. In return, we ask the government for its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hank you very much.



거점국립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야¹⁾

Transforming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into Research-Center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Co-development with Their Communities¹⁾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Oh Se-jung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즘 한국 대학이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 지원자 수가 입학 정원보다 적게 되면서,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非)수도권에서는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예측에 의하면, 2040년대에 들어서면 전국의 대학재적 학생 수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 정원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즉 수도권 대학들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한다면 전국의 대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공동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 소멸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사실 대학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일찍이 1997년 Forbes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뒤에는 대학 캠퍼스들은 유적(relics)이 될 것입니다. 대학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고등교육은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

The crisis of Korean universities is currently felt across a wide swathe of Korean society. With admission quotas outnumbering university applicants due to reductions in student numbers, a frequently cited joke that universities face bankruptcy in the order in which cherry blossoms bloom has inched toward reality. A growing number of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have reportedly failed to meet student enrollment quotas, while the operations of some private universities, which depend heavily on tuition revenue, have come under increasing financial pressure. To make matters worse, with no fundamental improvements in sight,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worsen. Youngtae Cho, demographer and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dicts that by the 2040s,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throughout the nation will be nearly as low as the total admission quota assigned to universities located around the capital area. Assuming nothing changes, this means the current admission quot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ould be able to accommodate all college applicants nationwide, which would seriously hamper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efforts to attract students. More depressing still, the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could hollow out surrounding communities, which in turn would undermin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le accelerating local extinction.

습니다. 상주하는 시설로서의 대학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인터넷이 널리 퍼지고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게 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모여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드러커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현존하는 대학 모델의 위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세계적인 COVID19 사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학이 위기 상황이고 앞으로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또 하나의 요인이 겹쳐진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개혁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피터 드러커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피터 드러커는 2027년에는 대학 캠퍼스들이 유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5년밖에 안 남은 현재 상황을 보면 대학 캠퍼스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Harvard나 Stanford, Oxford 같은 선진국의 유수 대학들은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첫째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에서 개인 접촉(personal contact)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지식 전수만이 아니고, 대학생활의 사회적 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재능을 갖춘 학생들은 점점 명문 대학으로 몰리고, 이들은 서로의 재능과 야망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며, 이들의 성공은 학교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 사이클은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

둘째 이유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가 중요해지고, 학제간 연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현대의 연구는 대규모 자금과 조직이 요구되는 대형 ‘거대 과학(Big Science)’이 중심이 되므로, 여러 분야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있는 연구중심대학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엘리트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

The idea of “universities in crisis” is not new. In a 1997 interview with Forbes, Peter Drucker, a world-renowned business administration scholar and futurist, caused a stir by predicting that many universities would drop out of the race and that their campuses would become relics in the next 30 years. Drucker argued that higher education would face an unprecedented crisis, claiming that universities functioning as residential establishments would be unable to survive. Specifically, he contended that the ubiquity of the Internet and increasingly easy access to online classes would motivate students to take full advantage of less costly non-face-to-face lectures, thus eliminating the need to be physically present at university. In this context, the crisis of the existing university model is not a Korea-specific issue, but a universal phenomenon. Over the past two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forced most universities throughout the world to resort to online lectures, further evidence that the university crisis is real and universities may need to take drastic measures to stay afloat. Nowhere is this truer than in Korea, where the school-age population is undergoing a sharp decline.

How then should universities navigate this challenging period? The objections that many experts have raised to Drucker’s argument that university campuses would become relics by 2027 provide potential answers to this question. It is already 2022, and chances are slim that his prediction will come true in the next five years. In fact, entrance competition for top-notch universities such as Harvard, Stanford, and Oxford has intensified. Why? Some experts in the field point to the pivotal role that personal contact plays in education and on-campus research. In other words, the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dimension of college in addition to its role as a venue for knowledge acquisition. In a nutshell, the college experience functions as a virtuous cycle whereby top students are admitted to high-ranking universities, motivate one another through their talents and ambitions for mutual success, and ultimately enhance the brand value of their universities.²⁾

Second, addressing the complicated problems of modern society entails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at is primarily conducted at research-focused universities where experts in a wide array of fields collaborate on numerous projects. Given that contemporary “Big Science” research



하는 연구중심대학은 아무리 비대면 강의가 효율적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러한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대학들은 결국 온라인 강의에 밀려 도태될 확률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학의 발전과정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대학은 사회적 격변기에도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대체로 4단계의 변화를 거쳐왔다. 12세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한 초기 대학은 주로 지식의 보존과 전수의 역할을 하였다. 그후 19세기 독일의 훔볼트가 주장한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지식의 창출이 대학의 주요 목표로 추가되었다.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20세기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을 기업과 공유하는 산학협력 기능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이 창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Research Triangle, 독일의 Dresden 지역,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중관촌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이 교육중심, 연구중심, 산학협동 모델을 지나 이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거점국립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즉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연구력으로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start-up 들을 창업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 인구조도 돌아올 것이고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소멸을 막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 이전 등이 추진되었지만, 규제를 통한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거점국립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일 것이다.



activities involve astronomical funding and giant organizations, research-focused universities are better positioned to take advantage of different research competencies and generate synergies. Consequently,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which highly talented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work closely together will survive online classes no matter how widespread and efficient they may become. On the other hand, those universities that simply impart knowledge and fail to effectively cope with this fast-changing trend will likely give way to online lectures and die out.

Additionally, the university’s future role warrants serious consideration. For centuries, universities have survived social upheavals while undergoing four stages of change. The earliest universities, which started in Bologna, Italy in the 12th century, took on the role of knowledge preservation and transfer. Later, research-focused universities advocated by Humboldt of Germany in the 19th century began to prioritize knowledge creation. In the 20th century, US universities inherited the mission of knowledge creation and brought it to the next level, enabling universities to share the knowledge they created with businesses through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ecent years, the emergence of the innovation model has taken such collaborations a step further with universities creating jobs through business start-ups to facilitate win-win relationships with their communities. Examples include Silicon Valley and the Research Triangle in the US, Dresden in Germany, and the Zhongguancun High-tech Zone of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The roles universities play have expanded from models centered on education, research, an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s to take on the critical role of achieving win-win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communities.

Taking these social changes into account, the future direction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s clear. They need to morph into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that foster win-win relationships with their communities. They can harness their research power to help their professors, students, and graduates establish competitive start-ups tailored to regional strength, reinvigorating regional economies, expanding the population, and eventually preventing local extinction. In fact, this seems to be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at these universities face. While 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regions in a balanced manner by relocating public corporations, they have fallen short because regulations often forestall desired outcomes. This leaves us with the aforementioned solution. However, i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to take center stage in regional development, they must level up their specialized research competencies to make them globally competitive. To this end,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must put their full support behind these institutions. Still, above all else, achieving this noble aim will require the dedicated effort of every university member.

1) 2022년도 제1차 고등교육포럼 (2022. 3. 30)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음.
 2) 로버트 라이시, 부유한 노예, 김영사, 2001
 1) Based on the presentation at the first 2022 higher education forum (March 30, 2022).
 2) *The Future of Success*, Robert Reich, Gimm-Young-Sa, 2001

총장협의회 제안한 지역거점연구중심대학 육성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비교

-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Yoon Seok-yeol'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to Ones Proposed b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한국 대학의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립대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거점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지역연구중심대학 육성에서 △국가 R&D사업 지역배분 확대 및 지역할당제 시행 △지역 대학에 국책연구소 신설 혹은 분원/우수특화연구센터 설치 △지역 대학 내에 과학기술 특성화 단과대학(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 공약을 제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거점국립대를 왜 지방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하는가'이다. 독일은 19세기 들어 전국 각지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국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은 19세기 말 동부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20세기 초 캘리포니아식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육성하여 3차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지방거점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만 지속가능발전 국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선도국(first mover)으로 도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1)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증액, 2)지방 거점대학(원)에 R&D 및 혁신 집중 지원, 3)지방대학 GBK(글로벌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R&D 및 혁신 지원, 3)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 신설 및 장학금 지급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제도화·구체화하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제안사항인 지방거점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첫째, 총장협의회 제안사항인 △국가 R&D사업 지역배분 확대 및 지역할당제 시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1)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증액하고 2)지방 거점대학(원)에 R&D 및 혁신 집중 지원과 연결된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는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현안인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이탈방지 및 지역이전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둘째, 두 번째 제안사항인 △지역 대학에 국책연구소 신설 혹은 분원/우수특화연구센터 설치 역시 1)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



In Februar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hereafter: presidential council) proposed adoptive measures to presidential candidates to develop Korean universities in the era of this great transition, cognizant of issues such as post-COVID-19 realitie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issue, we compare the pledges proposed by the presidential council to those of President-elect Yoon Seok-yeol,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actualization. The presidential council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improvements to the mandatory recruiting of local talent ▲implementation of the free tuition system at national universities ▲fostering regional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to fostering local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expansion of the regional allocation of R&D projects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quotas △establishment of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or branch/excellent specialized research centers in local universities △establish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colleges in local universitie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considered when proposing this pledge is "Why should national universities be fostered as local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the 19th century, Germany developed into a powerhouse in the era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by fostering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Likewise, the United States nurtured research oriented universities in the east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developed the California-styl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system in the early 20th century, becoming a powerhouse of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Now, in the early 21st century, Korea can become a coun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early developer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ly when it fosters local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President-elect Yoon Seok-yeol's pledges include 1) increasing the per capita education costs at local universities to the level of top national universities, 2) concentrating R&D and innovation at local universities, 3) supporting local R&D and innovation through GBK (Global Brain Korea) projects, and 4) establishing semiconductor departments and providing scholarships. If these pledg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pecified, it is possible to foster local flagship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First, the presidential council's proposal for △expanding the regional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and implementing a regional alloca-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Soon-ki Kwon
President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립대 수준으로 증액하고 2)지방 거점대학(원)에 R&D 및 혁신 집중 지원을 제도화하면 된다. 지역대학 특성화나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원분원의 신설, 지역혁신연구센터(RLRC)의 확대 지원, 또는 기초과학원(IBS)을 소규모화하여 지역대학에 확대 지원하는 지방기초과학원(RIBS)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대학 내에 과학기술 특성화 단과대학(원) 신설하는 제안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3)지방대학 GBK 사업으로 지역 R&D 및 혁신지원과 4)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 신설 및 장학금 지급을 구체화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BK사업에 공유대학원 개념을 도입하거나 지산학연 연계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거점국립대나 지금 사회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분야의 3-4개 국가거점국립대 단과대학과 서울대의 단과대학을 함께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상생과 선의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협력 증대에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공약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어떻게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느냐는 "지방 시대를 모토로 삼겠다"라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tion system is linked to President-elect Yoon Seok-yeol's pledge of 1) increasing the per capita education investment to the level of top national universities and 2) supporting R&D and innovation at local universities. Specific measures and systems for this part are a very effective way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s well as prev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from leav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duce regional relocation.

The second proposal △the establishment of a state-run research institute or the establishment of a branch/excellent specialized research center at regional universities, can also be implemented by 1) an investment increase of per capita education costs at local base universities to the level of top national universities and 2) institutionalization of higher R&D and innovation concentration support. Examples of good ideas w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branch of research institutes linked to the region's strategic industry and specialization,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a Regional Innovation Research Center (RLRC), or minimizing the Institute of Basic Sciences (IBS) and setup Regional Institute of Basic Sciences (IBS).

Third, △the proposal to establish a speci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university among regional universities is feasible 3) if supported by local R&D and innovation and 4) if establishment of semiconductor departments in local universities and scholarship support are concretized. This would serve to either introduce the concept of a shared graduate school to the currently supported BK project or establish a specialized graduate school in connection with local-industry-academia. In this regard,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currently an issue in society, proves to be a good idea. The feasible concrete plan is to establish a win-win and good-faith competition system by selecting and supporting 3-4 national university colleges and SNU colleges in areas with excellent performance in connection with national and regional industries. It can also link the increase in cooper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universities as stated in the presidential pledge. President-elect Yoon Seok-yeol's pledge has already presented a basic direc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designation as one of the world's top five powers. How to materialize and institutionalize this depends on the decision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The local era is our motto."

즉시 실행 가능한 대학정책 해법 2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 국립대학법 제정

Two Immediately Implementable University Policy Solutions

Improving the Public Institution Obligatory Local Talent Recruitment System and Enacting the National University Act

오늘날 우리는 사람과 기업의 수도권 쏠림, 집값 폭등, 청년들의 좌절, 초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시간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많은 국가적 난제에 대한 바른 해법이며, 지역대학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각 정당에 청원한 정책 중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실효적 해법 2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127개 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오랜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내용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지역인재 유출이 지역대학 어려움의 핵심이자 지역 침체의 핵심적 요인이다. 생애주기로 볼 때 대학 진학 시기에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집중된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수도권 집값 폭등의 근원적 요인이다.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혁신도시법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인재를 30% 뽑게 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남 나주에 소재한 한전은 광주-전남 지역 학교 출신을 30%를 선발하는데 전남대 전기공학과 입시결과가 5년 사이 2.8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올라갔다. 이 정도면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 수준이다. 이처럼 실효적인 정책인데 현행 법률의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면 그 정책적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소재지역' 인재에 한정한다는 데 있다. 이 제도가 유용한 제도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40% 또는 50%를 뽑도록 비율을 높인다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선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에 더하여 비수도권 전체에서 20%를 뽑는 트랙을 더 만드는 것이 좋다. 가령 한전의 경우 광주-전남 외에 비수도권에 수많은 전기공학도가 있고, 부산금융단지에서 있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부산지역 외에 비수도권에 수많은 경영학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비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대부분의 학과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고교생들이 대학졸업 후의 진로를 고려하여 소위 '인서울'을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실력에 맞추어 지역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은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Cha, Jeong In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oday, as we face national challenge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aring housing prices, youth frustration, and ultra-low birth rates, it is time to find and implement effective countermeasur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the solution to many of these national challenges,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is directly related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mong the policies petitioned b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I would like to highlight two effective solutions that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First, after long deliberation, an improvement to the public institution obligatory local talent recruitment system was proposed by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and 127 reg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s. I hop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pay it a lot of attention.

Outflow of local talent is the main problem facing local universities and a key factor in modern regional downturn. In terms of an individual's life cycle, population movement is concentrated towards the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of college entrance. The population's increasing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 fundamental factor in the soaring housing pric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hat allows local talent to choose a local university.

Nex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we now see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ve City Act. The Innovative City Act requires a recruitment of 30% human resources in the areas wher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located. Under the system, KEPCO, located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selects 30% of their students from schools in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and this led to an increase in entrance exam grades at th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rom level 2.8 to level 1.6 in five years. This is equivalent to the highest level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is a highly effective policy, and if irrational elements are removed from the current law, the effect of the policy would be greatly increased.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is that recruitment is limited to human resources in the region where the public institution is located. Though this system is useful, if the ratio were to be increased to 40 or 50 percent in the region alone, it would become difficult to select talented people who meet standard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not only the current selection rate remain the same, but additionally, a track that draws 20% from the entire non-metropolitan area should also be cre-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혁신도시에 취업한 인재들은 대체로 직장 소재지에 정주하지 않는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직장 주차장에 서울행 전세버스가 줄을 선다. 자녀교육, 수도권집값 때문에 수도권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학생이 한전에 취업을 하면 이사를 간다. 반대로 전남에 있는 학생이 부산 금융기관으로 취업을 하면 이사를 간다. 그 지역에 정주를 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이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할 사람의 문제를 간과하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주를 하고 사람이 살아야 효과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이미 고려하여, 법률안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법률 개정 후 5~6년 뒤의 신규채용부터 적용하면 된다.

한편, 국립대학법 제정 관련해서는 국립대학 대다수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할 점이다. 지금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 시설비, 인건비, 경장비를 각각 칸막이를 쳐서 보낸다. 개정안은 전체를 총액으로 내려 보내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학당국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국고지원금 책정 기준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학 법인과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이 발의되어 있다.

사립대학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한 법률에 묶어내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구성원의 신분 등 근본적 차이 때문에 규범력을 가진 법조문이 몇 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법률에 묶기보다는 국립대와 사립대 특성에 맞는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사립대학도 (가칭)사립대학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새 정부가 지역대학과 지역인재에 더욱 주목하여 국가적 난제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착착 마련해나가기 바란다.



at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KEPCO, there are many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o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and 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in Busan financial complexes could hire from many management departmen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o the Busan area.

This way, since 153 public institution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most of the departments of local universities are related, high school students will choose local universities based on their skills instead of blindly trying to advance to universities in Seoul taking into account their careers after graduation. This policy can be a game changer for the outflow of local talent.

People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mployed in innovative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generally do not settle in the workplace cities. On Friday evening, chartered buses bound for Seoul line up in the parking lot of those companies. Workers are trying to maintain their liv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account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housing prices. However, a student from Busan who gets a job at KEPCO would move. On the contrary, if students in Jeollanam-do province get a job at a Busan financial institution, they would move there, too. They would settle in the area. Even if large-scale resources are investe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ransferred to public institutions, the effect will be halved if the problem of those who will work there is overlooked. The effect is complete only when people move house and live ther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le disadvantages of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ill has a transitional regulation, meaning it can be applied to hiring new employees beginning five to six years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it is a point to consider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t the majority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located in regions outside Seoul. Now, when the government supports state subsidies to national universities, it is sent in a category such as facility costs, labor costs, and current expenses separately. The amendment calls for the state support to be subsidized without category. This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ubsidies and further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authorities. Increasing autonomy and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s the right direction. The standard for setting state subsid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average state subsidies per student at national universities are not differentiated from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With this content included, the National University Act has been proposed.

Private universities also need state supp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However, tying private universities and national universities to one law is not the solution. Due to fundamental differences such as the status of members, few legal texts will be possible with normative power. Rather than tying it to one law, laws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made separately. Private universities also need to enact the tentatively named Private University Act.

We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ew government will pay more attention to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talent, and come up with effective solutions to national challenges.

국가균형발전 위한 인재육성 중요성

종합학문 바탕의 특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Importance of Nurturing Future Tale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Studies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Jung Sung-taek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지금의 대학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물리적인 형태와 모양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계속 창출하는 고유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미래에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은 대학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훨씬 얻기 쉬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육의 기능면에서 대학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 대학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들의 새로운 연구력들이 대학에 역수입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학으로서의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부딪힐 수많은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약 400개의 대학 중 다양한 학문 생태계 즉, 첨단 학문 뿐 아니라 인문사회, 예술 등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거점국립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R&D예산 약 27조 원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기초근간인 인문학에 투입된 예산은 3,200억 원,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요즘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는 각종 지표에서 이러한 지표들은 대한민국 학문의 다양성을 지켜야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점국립대의

How long do you think the current form of universities will exist? Although the exterior structure of universities may change in various ways, I believe that the unique function of nurturing future talent through education and creating values needed by the times through research should not be changed.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obtaining all the specialized knowledge needed for the future is easier in the online sphere than at a university these day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function of education, some say universities cannot keep up with changes in society. Many companies are producing the resources for research they need at their in-house institutes and those resources are being reimported to the univers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a pivotal question we should keep in mind emerges. Should the function of universities be limited to training students by teaching them simple knowledge to cultivate them into the leaders of the future? Or should they give students the wisdom to navigate the myriad challenges they will face?

I believe that among about 400 universities in Korea,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are the institutions that can preserve the diversity of the academic ecosystem, not only cutting-edge science, but also in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Unfortunately, as of 2021, out of Korea's R&D budget of about 27 trillion KRW, only 1.2%, which is 320 billion KRW was invested in the humanities, which is considered a fundamental study. Given the various indicators that universities are competing for in order to

입장을 굉장히 옹색하게 만든다.

대학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차기 정부에서 다양한 학문적 생태계 유지를 위해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매우 높다. 전체 대학생의 약 80%가 사립대학에 다닌다. 미국은 단지 25%의 학생이 사립대학을 다닌다. 영국의 사립대학은 버킹엄대학 등 4개에 불과하다. 즉, 고등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국가가 인재를 육성해야한다는 책무를 갖는다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의 유지 발전은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신자유주의적 논리로만 해석될 수 없다. 많은 혁신적인 발전은 기술과 인문학, 기초과학적인 융화의 산물(예, 스티브 잡스가 꽃힌 폰트의 아름다움)로 이루어진다.

셋째, 수도권 인구 집중화 및 지역인구 소멸을 막는 대책 가운데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학문 생태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학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 대기업의 산업단지 유치나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역에 인재가 메달라 있다면 어느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

거점국립대의 교육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교육부나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원 투자가 어렵다면 제도적으로 지역 기업과 단체가 정부에 내는 세금을 학교 기부금으로 내고 상당한 비율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세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2018년 미국 대학에 기부된 민간 기부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9조 4000억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통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연구력 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담론을 나눌 수 있지만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똑같은 차이가 아닌 차별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재정과 운영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survive these days, such underinvestment places the aims of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hich are to preserve the diversity of the academic environment, in a very awkward position.

Since this type of problem is not going to be resolved only by universities, I believe that it is crucial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and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deal with this problem by intensive investment in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maintain the diverse academic ecosystems they cultivat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 has a typically high ratio of private universities. About 80% of all university students atten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only 25% of students attend private colleges. There are only fou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K, including Buckingham University. In other words, those countries bear the responsibility to nurture future talents even though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is high.

Second,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basic science and systematic protection for the fields that require extra support are very important in securing the diversity of the academic ecosystem. Also,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by neoliberal logic. Innovation has been the product of the fusion of technology, the humanities, and basic sciences (e.g, the beauty of the font Steve Jobs was attracted to).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solid academic ecosystem centered on regional bases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can b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opulation shrinkage in areas at risk of depopulation. A diverse academic ecosystem can attract large corporations to industrial complexes in nearby areas and lead to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those areas.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no reason to relocate to a region if it has suffered from a shortage of future talent.

Education at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i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nurturing local talent. If it is difficult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the government to directly invest in the form of financial resources, systematic support such as tax relief for local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that donate certain amount of money to universities or make donations in the form of income deductions up to a significant percentage are viable alternatives.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the amount of donations to US universities made in the private sector in 2018 was more than five times the amount of our higher education budget (9.4 trillion KRW).

There can be various discourses regard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research capabilities through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but most of all, support for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maintain academic diversity should take priority. It is my conclusion that what should be resolved here is not just about differences in finance and operation, but discrimination.



국가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 전환 전략

Transition Strategy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이종승
동아일보 부국장
Jong-seung Lee
Deputy Director of Dong-A Ilbo

광역자치단체의 최대 고등교육기관인 국가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 전환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가거점국립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국가거점국립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중심대학 전환을 들었고, 20대 대선 국면에서 여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에 다행인 것은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가 설치되고 지역대학 활성화가 차기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에 최우선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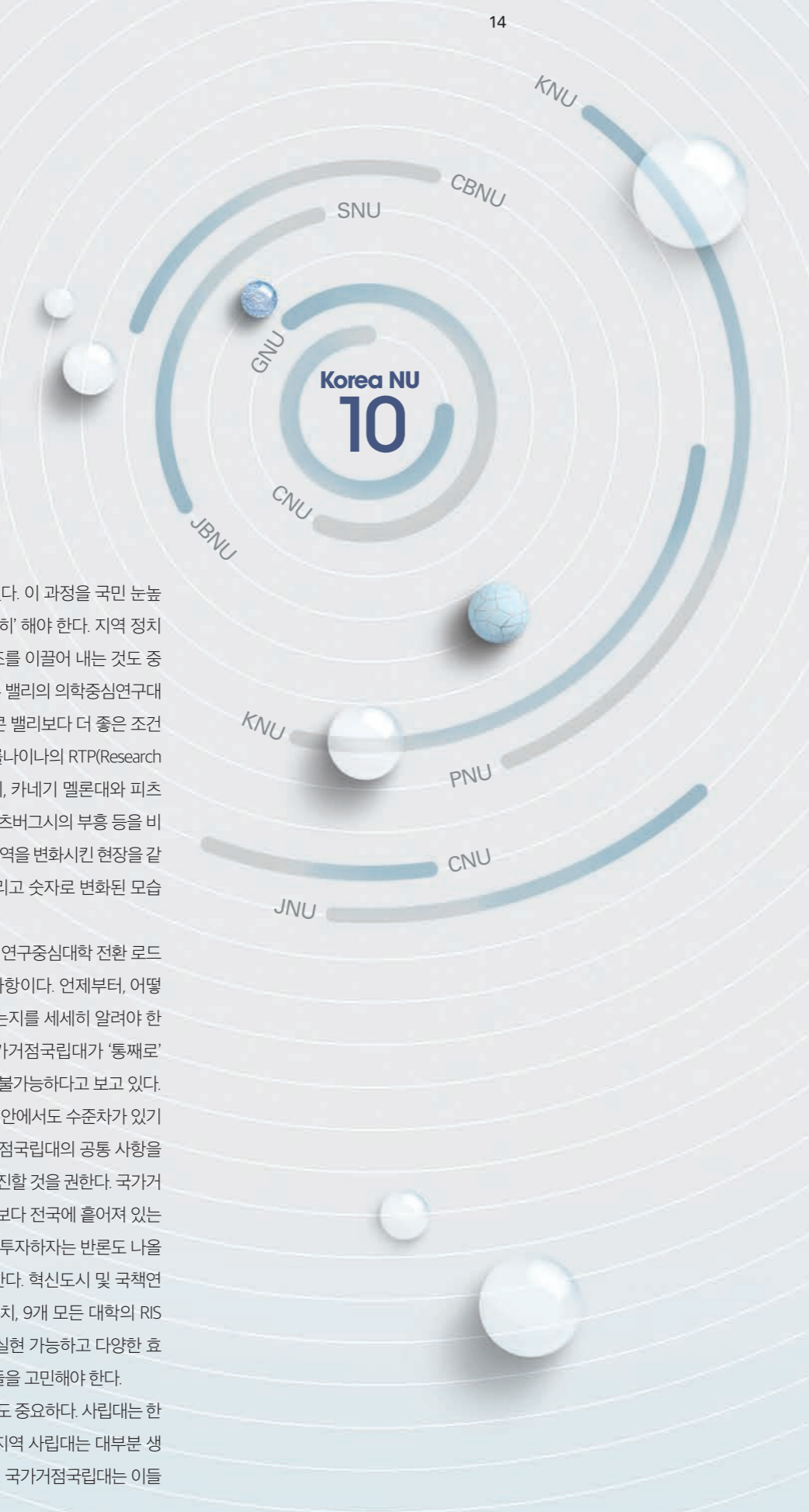
이제 남은 것은 연구중심대학 전환에 필요한 국민적 지지와 구체적 방안인데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고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대학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동의를 필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연구중심대학 개념을 모르고 있어 문제다. 코로나19 대응, 복지 예산, SOC 건설에 앞서 왜 연구중심대학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가 지금까지 정책 결정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연구중심대학 전환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앞으로는 그 대상이 국민들과 여론이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중국, 일본 등은 연구중심대학을 기반으로 국부를 쌓

았고 지역을 회생시켰다. 이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꾸준히' 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동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보스턴 벨리의 의학중심연구대학이 이끈 혁신, 실리콘 벨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RTP(Research Tringle Park) 연구단지, 카네기 멜론대와 피츠버그대학을 활용한 피츠버그시의 부흥 등을 비롯해 대학이 세계와 지역을 변화시킨 현장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숫자로 변화된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연구중심대학 전환 로드맵을 포함하는 세부사항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들여야 하는지를 세세히 알려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국가거점국립대가 '통째로' 연구중심대학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9개 대학과 같은 대학 안에서도 수준차가 있기 때문이다. 9개 국가거점국립대의 공통 사항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추진할 것을 권한다. 국가거점국립대를 육성하기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과기특성화대학에 더 투자하자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혁신도시 및 국책연구소와 융합, IBS의 설치, 9개 모든 대학의 RIS 선정과 핵심 역할 등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사립대학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사립대는 한국 대학의 대다수다. 지역 사립대는 대부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국가거점국립대는 이들



대학과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 사립대의 폐교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초기 거점국립대 육성은 지역중심국립대의 반발에 막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사립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지역중심국립대는 불과 30여개에 불과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했다. 한 번에 다 얻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의 시간이 왔다. 대학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문제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핵심으로 여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이고 성장 잠재력도 훼손될 것이다. 국가거점국립대는 국가의 자산이다. 이들 대학의 발전은 시대의 소명이기도 하다. 국가거점국립대 구성원들은 지원 요구를 하면서 더 정당해지기를 바란다. 빼먹으면 안 될 것도 있다. 연구비리, 기득권 유지 등 후진적인 대학문화에 대한 반성과 방지 대책 등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The transition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larges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to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has marked a new turning poin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have emphasized their ability to play a key role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out the five years of the President Moon Jae In administration. As a concrete measure for this, they pointed to a transition of its university type to research-oriented, and received support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ortunatel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has set up 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ranscription factor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has been presented as the top priority for the next government's educational task.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us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s an important too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at remains now is public support and concrete measures necessary for the flag-

ship national universities' conversion to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for this, considerable funds and university policies which include university restructuring a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smooth transition to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to take place, public consent on financial input is essential.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a majority of the public do not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ublic understand why a lot of investment on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should be prioritized the response to COVID-19, welfare budgets, and SOC construction. If the explanation thus far has been made to policymakers and opinion leaders, the target should now be the public and public opi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China, and Japan built national wealth based on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successfully revived their regions. This process should be intentionally easy and constant, in line with the public's view. It is also important to persuade and draw consent from local politicians. The university and the politicians should visit sites that have changed the world and the region, including innovations led by Boston Valley's medical-oriented research college, RTP (Research Tringle Park) research complex in North Carolina, which has better conditions than Silicon Valley, and the revival of Pittsburgh City, which utilized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present the changes in numbers.

The presentation of specific plans is a detail that include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transition roadmap containing when, how, and how much should be spent in detail. The university community believes that it is impossible for al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switch to being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This is because there is a level difference within the nine universiti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ine national universities present common matters and promote them step by step.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may be objections encouraging mor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specific universitie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rather than foster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hat can have practical and diverse effects, such as convergence with innovative cities and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the installation of IBS, and the selection of RISs and the key roles of all nine universities.

Establishing relations with private universities is also important. Most local private universities are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propose joint plans with these universities. The government knows that the closure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will lead to regional extinction, therefore it is not easy to ignore this and establish policies for only national univers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perience of nurtur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as blocked by opposition from regional-centered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early days of Moon Jae In government, now the approach should be more considerate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There were only about 30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but they failed to cross the wall. Rather than getting it all at once, the focus should be to get it little by little, even if it takes time.

It's time for college. If universities are not considered the key to solving problems facing Korea, such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youth issue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Korea but also its growth potential will be undermined.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an asset of the country. The development of these universities is also a calling of the times. Member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should be more confident in their demands for assistance. There are things we must not miss; a clear expression of the position of things that have been criticized by society, such as reflection on university culture including research corruption, maintaining vested interests, and upkeep prevention measures.



K-NU10 News 1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많아지도록
환경 만들 계획”

Byung-joon Kim,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veals Prospectus of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Draws More
Companies to Local Cities”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는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즉문즉답’ 형식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먼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역인재 소재지 30%와 추가로 비수도권 전체에서 20%를 뽑는다면 더욱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안을 뛰어 넘어 기본적으로 지역으로 기업 이전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과거 균형발전의 기본이 공공기관을 국가권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면 새 정부에서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 및 규제완화, 특혜 등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교육부 존치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청 거버넌스에 대한 새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인적 자원에 대한 고민 없이 공급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인력을 양성하려면 인력에 대한 수요와 산업, 시대의 변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이런 점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좀 더 전체적인 사회변화에 맞는 인력, 지역 수요에 어울리는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어떻게 지역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생각을 물었다.

권 총장은 “지역에 연구중심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1870년대 이후 지방 연구중심대학을 바탕으로 소재부품 강국이 된 독일과 동·서부 지역에 연구중심대학 설립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시대 강국이 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새 정부의 의지와 결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권력이 분산돼 있기에 가능했는데, 우리는 권력이 집중화 되어 있고,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 결정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는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t the 1st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a meeting with Kim Byung-joon,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special chairma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ave a glimpse into the direction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The session was arranged in a form of immediate questions and answers when the president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ked questions focusing on what they proposed as presidential pledges. Chairman Kim provided answers on the spot.

First, Dr. Jung-in Cha, President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stressed the ne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sai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dd an obligatory employment of 20% more from overall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to the current 30% employment from where the public organization is located.

In response, Chairman Byung-joon Kim said, "For balanced development, beyond this proposal, corporate moves to local cities should be included." He also added, "If the moving of public institutions by national power was a basic of past governments, the new government will create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more companies to move to local areas through market logic."

Dr. Heon-young Kim, preside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n asked about the new government's pla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launch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and the governance of the education office. In response, Chairman Kim replied, "The current problem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only considering supply without thinking deeply about human resources, but in order to cultivate manpower, we need to judge the demand for manpower, industry, and changes in the times." "We need to overhaul the administrative system to meet more overall social changes and local demand," he said.

Third, Dr. Soon-ki Kwon, president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ked the new government's willingness and thoughts on how to creat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the region.

"I think creating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Korea's entry into the world's top five powerhouses," Kwon said, and asked about the will and decision of the new government,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which became a material and parts powerhouse with the help of local research oriented universities after the 1870s, and the U.S., which has become a powerhouse 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by establishing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the east and west.

In response, Chairman Kim said, "It was possible for U.S. and Germany because those countries have federal governments and power is divided, but we have concentrated power and that power i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dding, "The frame of policymaking itself should be changed. The new government will try to keep its promises."



K-NU10 News 2

거점국립대총장협, 2022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교수 대학혁신책 제안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Holds its First Regular Meeting in 2022
 Professor Jong-young Kim, author of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poses a university innovation plan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가 2월 4일(금) 오후 2시 경남 사천시 아르떼리조트에서 2022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0개 협의회 대학 총장들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대학혁신책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소위 ‘등보잡’이었던 캘리포니아주 10개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이뤄진 세계 최강의 공립대학 체제를 구축하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 된 사례를 제시하며 거점국립대 9곳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10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서울 독재(독점)의 해체 없이는 극단적인 병목현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지방대를 지원한다고 서울대가 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대학별로 특성화 된 학문 분야를 키우고, 캘리포니아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화 시간에서는 국가거점국립대가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LINC 3.0의 지역 편중 없는 고른 배정과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적정규모화’ 추진 관련 제안, 그리고 거점국립대 4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에 대한 개축 등이 제안됐다.



The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hairman Dong-won Kim, President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eld its first regular meeting in 2022 at the Arte Resort in Sacheon, Gyeongsangnam-do, at 2 p.m. on Friday, February 4.

The meeting was attended by Presidents of the 10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e-jin Cho,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Jong-chul Chung, Vice Minister of Education and Ki-bong Le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Professor Jong-young Kim of Kyung Hee University, author of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drew particular attention by proposing a university innovation plan to upgrade the other nine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the leve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ideas contained in his book.

Professor Kim introduced the innovative case of ten mediocre universities in California before World War II which joined to become the world’s strongest research oriented public university system through specialization. He suggested providing large scale support for nin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upgrade them to the leve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special lecture, Professor Kim continued to say “Without the dissolution of the dictatorship in Seoul, it is impossible to escape the significant bottlenecks and im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dding, “There is much skepticism about whether supporting local universities can become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we need ‘accumulation time’ like California - continuously investing and waiting.”

At the opening discussion, following the lecture attended by Jong-chul Chung, Vice Minister of Education and Secretary General Ki-bong Lee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proposals were made for a balanced regional allocation of LINC 3.0 and an ‘appropriate scale’ for the 2022~2024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as well as renovation of old buildings a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at are more than 40 years old.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국제학부 출범

Launching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o Nurture Global Experts



충남대학교가 2022학년도 국제학부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한 가운데, 국제학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남대는 4월 1일 오후 3시, 글로벌인재양성센터에서 김기수 교학부총장, 임현섭 기획처장, 조혁수 국제학부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남대는 국제무대에 주역이 될 진취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 국제학부를 신설했다. 수시와 정시로 2022학년도 국제학부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국내 학생 20명, 외국인 학생 27명 등 총 47명이 1기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국제학부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진숙 총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서 출신 국가와 전공의 다원화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학부 과정이다. 국제학부의 교과과정은 국제학 전공과 한국문화학 전공 두 가지로 나뉘며, 정치, 경제, 경영, 무역, 한국어, 문학, 식생활 등 80여 개의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한다.

국제학부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화된 교육을 통해 국제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인재를 충남대로 불러들여 한국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stablished in 2022, recently held an inauguration ceremony, celebrating its role as a leading institution in nurturing global leaders and starting the selection of students.

CNU hel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eremony" at 3 p.m. on April 1 at the Global Leader Nurturing Center. Prominent university officials were in attendance, including Vice President Kim Ki-soo, Director of Planning Lim Hyun-sup,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ies Cho Hyuk-soo.

CNU established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o specialize in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 total of 47 students, including 20 Korean students and 27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this course as first-term freshmen.

Establishing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was one of the pledges the president Lee Jin-sook proposed when she was a candidate for her position. This new leading undergraduate division aims to educate excellent students and vitalize international affairs to enrich academic lessons with experience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urriculum is bolstered by an array of 80 academic programs, such as politics,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commerce,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food culture. Students can major in International Studies or Korean Cultural Studies to strengthen their academic profile.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llows students to specialize in Korean culture by affording them a wealth of concrete experiences and insights, as well as access to Korean cultural heritage by inviting you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y can leverage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from this course to advance to the international stage.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선정

Designated as 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2022년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IP중점대학)사업'의 대전·세종·충남권역 사업수행 기관으로 충남대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IP중점대학 선정으로 충남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55억 7,530만 원의 사업비(특허청 41억 5,000만 원, 충남대 14억 2,530만 원)를 지원받는다. 또, 5년간의 기본사업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5년(3년+2년) 지원이 가능해 최대 총 10년간 약 11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IP중점대학)'은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분야별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타 대학·기관·기업·고교 등에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설립하고 학부에는 복수·부전공, 일반대학원에 지식재산(IP)융합학과, DSC 공유대학에 교양교육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설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IP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RIS) DSC 공유대학, LINC 3.0, 창업지원단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Korean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ave recently chosen CNU as the 2022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for the Daejeon, Sejong, and Chungnam regions. For being selected as a center for IP education, CNU will receive a total of KRW 5.5753 billion (KRW 4.15 billion from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KRW 1.425.3 billion from CNU) for five years, ending in 2026. In addition, this project is eligible for an additional grant of 11.6 billion won for up to 10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original five years of the fundamental project and a formal assessment.

Th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roject is engaged with IP educa-

tional programs for universities,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high schools to nurture experts specialized in each field of IP, which will drive sustainable growth with support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CNU will establish a project to train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P by structuring liberal education and micro degree programs for IP convergence courses at graduate schools and universities, working with DSC to offer double major and minor courses at undergraduate schools.

There are also plans to establish a sustainabl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ystem while maximizing performance through seamless cooperation with Daejeon, Sejong, Chu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RIS), universities with DSC (Daejeon Sejong Chungnam), LINC 3.0, and start-up support projects.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우수 연구자 지원 확대 앞장

CBNU Leads to Expand Support for Outstanding Researchers

이 달의 연구자 제도 도입...

김민구, 박현정, 유영상 교수 선정

충북대학교가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고자 2022년 3월 '이달의 연구자' 제도를 도입했다. 첫 수상자로 홍콩 이공대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정합이 필요 없는(registration-free)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기법'을 최초로 개발한 건축공학과 김민구 교수를 선정했다. 김민구 교수는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에 'Registration-free point cloud generation technique using rotating mirrors'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구조물의 3차원 형상계측은 정밀 형상계측이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고자 회전 가능한 평면거울을 이용해 스캐너의 이동 없이 한 위치에서 구조물의 3차원 형상을 계측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39%의 시간 단축과 함께 정합 어려 없이 정밀한 3차원 형상계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4월에는 국제경영학과 박현정 교수와 물리학과 유영상 교수를 선정했다.

박현정 교수는 '기술에 대한 심리적 성향과 무인 매장 경험자의 패러독스 및 행동적 태도 간의 관계를 최초로 밝혔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IF:7.135, 학문 분야별 IF값 상위 20.588%)에 'Technology Readiness and Technology Paradox of Unmanned Convenience Store User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쇼핑객이 무인 편의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포착하기 위해 통제/혼돈, 효율/비효율성, 공적/사적 측면에서 만족/불만족과 관련된 역설적인 태도를 조사하고, 기술수용 태도와 사용 확산 태도 간의 관계를 이러한 패러독스가 매개하는 역할과 함께, 동기부여 요인과 저항 요인이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했다.

유영상 교수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산화물 지지체에 따른 'Pt 단원자 촉매반응'을 실시간 X-

선 분광-현미경 기법을 이용해 규명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IF:12.732, 학문 분야별 IF값 상위 6.579%)에 'Enhancing the inherent 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of TiO₂ supported Pt single-atoms at CeOx-TiO₂ interface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높은 활성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지니는 Pt 단원자 기반의 촉매 물질을 설계하기 위해, CeOx-TiO₂ 기반의 산화물 지지체를 합성하고 그 계면에서 Pt 단원자가 쉽게 합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이달의 연구자'는 자율적 연구 환경 분위기를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으며, 논문, R&D 수주, 기술이전 등 연구실적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논문의 경우 발표 학술지의 피인용지수(IF)가 5 이상이거나 학문 분야별 IF값 상위 10% 이내인 경우, R&D 수주와 기술이전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매달 선정한다.

Professor Kim Min-gu, Park Hyun-jung and Yu Young-sang were selected as "Researcher of the Month"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im Su-kab) introduced the "Researcher of the Month" in March 2022 to discover researchers with excellent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enhance their authority and honor.

As the first winner, Kim Min-gu, a professor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was selected. He first developed 'registration-free 3D point cloud generation technique' throug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published a paper titled "Registration-free point cloud generation technique using rotating mirrors" in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precise 3D shape measurement of the model, Prof. Kim developed the novel technique of 3D shape measurement of the model using rotating mirrors without changing the scanner location. The technique reduces time by 39% and facilitates efficient and accurate registration-free 3D shape measurement.

In April, Park Hyun-jung,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Yu Young-sang, a professor of Physics, were selected.

Professor Park Hyun-jung first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endency toward technology and paradoxical and behavioral attitudes of unmanned convenience store users. And she published a paper titled "Technology Readiness and Technology Paradox of Unmanned Convenience Store Users" in the international prestigious journal,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IF: 7.135, top 20.588% of IF values by ac-

ademic field).

To find out how shoppers perceive unmanned convenience store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shoppers' paradoxical attitudes related to satisfaction/dissatisfaction on control/confusion, efficiency/inefficiency, and public/private aspects. They proved that these paradoxe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readiness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and motivation and resistance factors relatively influence on user attitude.

Professor Yu Young-sang identified the catalytic activity of oxide-supported Pt Single-atoms (PtSAs) using real-time X-ray spectromicroscopy, and published the "Enhancing the inherent 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of TiO₂ supported Pt single-atoms at CeOx-TiO₂ interfaces" in the international prestigious journal,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12.732, top 6.579% of IF values by academic field).

In this study, to design Pt single-atom catalysts with high activity and stability, the researchers synthesized CeOx-TiO₂ hybrid-oxide supports and proved that Pt single-atoms could be easily synthesized at the CeOx-TiO₂ interfaces.

"Researcher of the Month" is introduced to promote the autonomous research environment and improve research competitiveness. Its winner is selected every month based on research achievements such as thesis, R&D orders, and technology transfer, etc. As for a thesis, it should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hose impact factor (IF) is over 5 or in the top 10% of IF values by academic field. As for R&D orders and technology transfer, they are selected based on the amount.

왼쪽부터 From left to right
김민구 건축공학과 교수
Kim, Min-gu (Prof.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박현정 국제경영학과 교수
Park, Hyun-jung (Prof. of International Business)
유영상 물리학과 교수
Yu, Young-sang (Prof. of Physics)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 선정

Selected for the 「Regional Innovation Strategy(RIS Project)」, a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15개 대학과 더존비즈온, 네이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0여 개 지역혁신기관은 향후 5년간 총 2,145억 원(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을 지원받아 혁신인재 양성과 선도기술 개발, 산업전환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 RIS사업」은 강원대가 총괄대학을 맡아, ▲정밀의료(중심대학 강원대) ▲디지털헬스케어(중심대학 연세대 미래캠퍼스) ▲스마트수소에너지(중심대학 강릉원주대)를 각각 핵심분야로 추진하며,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의 공유

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주력 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RIS 사업」은 강원도와 지역대학들이 역량을 모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강원대는 지난 3월 강원도 내 15개 대학, 30개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과 함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강원 RIS사업)」 성공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혁신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영 총장은 “이번 「RIS사업」 선정으로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대학과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was selected for the 「2022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RIS project aims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by establishing a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ional universities, innovative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ed parties.

Upon the project selection, 15 universities within the province, includ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60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such as Douzone Bizon, Naver,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ill receive a total of 214.5 billion won (150 billion w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64.5 billion won from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next five years to carry out projects to cultivate innovative talents, develop leading technology, and support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start-ups.

KNU will take charge of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Gangwon RIS Project」. In particular, KNU will lead projects in the field of Precis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will manage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an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ill take the lead in operating projects regarding Smart Hydrogen Energy. Through cooper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 and local innovative industries in the mentioned fields, the universities plan to foster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by operating programs such as high school credit transfer course system(elementary/middle/high school), recruitment-linked micro-contract degree track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 허브’」 기공식 개최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a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novation Hub’」

강원대학교는 3월 17일(목) 춘천캠퍼스 동문 인근 산학연 혁신 허브 신축 부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 허브’ 기공식」을 개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는 지난 2019년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사업에 선정됐다.

강원대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6만 6,500㎡ 규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 1단계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8,217㎡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4.7억 원으로, 국비 190.5억 원, 도비 37억 원, 시비 37억 원, LH 240.2억 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혁신 허브」는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 4,765㎡의 부지에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며, 데이터·바이오·정밀의료·디지털 치료기기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약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opening of 「Campus Innovation Park」 on March 17th (Thu) at the new site of the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novation hub near the east gate of the Chuncheon campus.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o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that lead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designated as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for the 66,500 m²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site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anuary last year. As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of 28,217m² is planned to be complet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total budget of the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round 50.47 billion won, with 19.05 billion won from the state budget, 3.7 billion won from the provincial budget, 3.7 billion won from municipal budget, and 24.02 billion won from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The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novation Hub」, is expected to open in the first half of 2024. The hub will be built on a site of 14,765 m² in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on an 8-story scale. Moreover, the hub is expected to attract more than 100 companies in the fields of data, bio, precision medicine, and digital treatment devices while creating about 1,500 jobs.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경북대학교



경북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최대 5년간 3,316억 원 투입해 지역혁신 추진

KNU Selected as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
Regional Innovation Promotion through the Investment of KRW 331.6 billion for up to 5Years

경북대학교가 총괄대학으로 참여하는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이 대규모 국책공모사업인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이하 RIS)'에 선정됐다.

RIS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총괄대학인 경북대와 중심대학인 영남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14개 지역 혁신기관과 연구소, 200여 개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1차년도 572억 원(지방비 30% 포함)을 포함, 최대 5년간 3,316억 원을 투입해 핵심분야로 정한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전환부품'을 중심으로 교육체계 개편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혁신대학(DGM) 설립·운영 ▲대학 간 공동학과 신설·운영 ▲현장·공유캠퍼스 운영 ▲메타 캠퍼스 운영 등 대학교육혁신 추진과 함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역정착 지원 ▲선도기술 및 제품개발 ▲기업혁신 지원 등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간 자원 공유 기반으로 설립하는 대구 경북혁신대학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연간 1,100여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RIS 유치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그 길의 선두에 경북대가 서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The Daegu-Gyeongbuk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in whi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participate as the supervising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2022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 (RIS)', a large-scale national public competition project.

The RIS project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etc., to select key areas that meet local mid- to long-term development goals, and to promote regional innovation through such cooperation.

The Daegu-Gyeongbuk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is a plural platform in which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e participate together. Twenty-three universities, includ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the supervising university and Yeungnam University as the central university, will participate along with 14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200 local companies.

Going forward, KRW 331.6 billion will be invested for up to five years, including KRW 572 billion (inclusive of 30% of local expenses) in the first year, to reorganize the education system with a focus on electronic information equipment and conversion parts for cars of the future as the core areas, as well as other regional innovation collaborative projects.

To this end, in addition to the promotion

of innovative university education program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aegu Gyeongbuk Innovation University (DG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oint departments between universities, the ▲Operation of field/shared campuses, and the ▲Operation of the Meta-Campus, the project also plans to carry out tasks for each core field, including ▲Customized talent cultivation and support for local settlement, ▲Leading technologies and product development, and ▲Corporate innovat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Daegu-Gyeongbuk Innovation University (DGM), which wi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esource sharing among universities, 1,100 core talented individuals will be trained annually to lead the various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Wonhwa Hong, Presid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oted, "By being selected for RIS, we are now able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Reviving local businesses, nurturing talented people,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s only possible when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local businesses, and related organizations work togeth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stand at the forefront of that path."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official1946



“메타버스 경북대 월드에서 만나요!”

경북대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 기념 ‘메타버스 타고 미리 가본 경북대학교’ 행사 개최

“See you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rld in the Metaverse!”

‘Visit KNU in Advance via the Metaverse’ event held to commemorate the establishment of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taverse Promotion Hall

경북대학교는 캠퍼스 일대를 구현한 메타버스 홍보관의 문을 열었다. 네이버 제페토 플랫폼에 구축된 '경북대 메타버스 홍보관(이하 홍보관)'은 본관과 글로벌플라자, 박물관, 일청담, 대운동장 등 캠퍼스 주요 건물과 명소가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다. 제페토에서 '경북대학교 캠퍼스'를 검색하면 누구나 방문해 캠퍼스 공간을 간접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

경북대는 홍보관 구축 기념으로 4월 2일 '메타버스 타고 미리 가본 경북대학교' 행사를 개최했다.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활 정보가 부족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경북대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환경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받은 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경북대 재학생들이 'KNU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직접 나서 캠퍼스 곳곳을 안내하며 대학 및 학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북대는 앞으로 홍보관을 대학 행사, 소

모임,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전반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opened a Metaverse Promotion Hall, which embodies the entire campus.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taverse Promotion Hall' (hereafter 'Promotion Hall') is built on the Naver ZEPETO platform and includes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Global Plaza, KNU Museum, Ilcheongdam Pond, sports grounds, and other major campus buildings and attractions, all implemented in three dimensional space. Anyone can visit and take a virtual tour of the campus by searching f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 the ZEPETO app.

On April 2,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Visit KNU in Advance via the Metaverse' event to commemorate the

establishment of the Promotion Hall. This event, prepared so that prospective entrance examinees who lack information about college life in the contactless era can learn abou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excellent curriculum and environment in advance of actually visiting the campus, was held for approximately 100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pre-registere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lso participated as 'KNU Metaverse Creators' and guided the high school students around the campus, introducing the university and its departments, while also holding various events. Going forwar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use the Promotion Hall for university-wide events such as university-hosted events, small group gatherings, and student club activities.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선정 '항공우주청'과 시너지 효과 기대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 selection of the 'Future Aerospace Training Center' will create a synergistic effect with the 'Korea Space Agency'



경상국립대학교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 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센터장 박재현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세종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미래 우주기술 교육·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미래우주교육센터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경상국립대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는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등 지자체와 한화시스템(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우주 분야 기업 5곳, 진주 혁신도시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경대 등과 우주 분야 연구 및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향후 5년간 국고 50억 원, 지자체 지원금 12억 5,000만 원, 기업 지원금 5억 원 등 모두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 실무교육, 취업 지원 연계,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미래 우주 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30명의 석·박사급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위성시스템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서부경남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 경상남도 사천에 설립될 항공 우주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The "Satellite System Cor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CTRC) for Highly Reliable, Low Cost, and Low Orbit Satellite Cluster Utilization"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eaded by Park Jaehyun, who is also an aerospace and software engineering professor, is designated as the "Future Aerospace Training Center," which i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The MSIT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have finally se-

lected GNU,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Sejong University, Inha University,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s the "Future Aerospace Training Center" to perform specialized training and research on the future aerospace technology. GNU's SCTRC hosted the aerospace research and training consortium wit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sangnam-do, Jinju-si, and Sacheon-si); five companies in the aerospace industry (including Hanwha Systems Co., Ltd.,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Korea Testing Laboratory in Gyeongnam Innovation City; an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Center plans to secure a total budget of KRW 6.75 billion, including KRW 5 billion from the government; KRW 1.25 bill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KRW 500 million from the companies for the next five years. Moreover, the Center plans on training 30 core specialists under Masteral and Doctorate programs by implementing intense capacity-building on the future aerospace technologies, including field practice, employment support systems, and internationally cooperated programs. As the satellite system core technology research center is located in Western Gyeongsangnam-do, the synergy effect with the 'Korea Space Agency',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Sacheon, Gyeongsangnam-do, is expected to be great.

A University that pioneers the future and Shares valu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 SNS • www.facebook.com/smartGNU • blog.naver.com/gnujinju



경상국립대, 새로운 심벌마크·마스코트 확정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양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made their new symbol and mascot The unique and original design from other universities

경상국립대학교는 대학의 새로운 심벌마크(VI: Visual Identity)와 마스코트를 확정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3월 통합대학 출범 이후 안으로는 대학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구성원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밖으로는 단일 이미지를 통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제작했다. 경상국립대 심벌마크의 콘셉트는 '위대한(The Great)'이다.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이다. 또한 핵심가치는 '도전하고 개척하며 내일로 나아가는 대학(Pionee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Great)', '통합으로 새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Integration)'이다. 경상국립대는 새 심벌마크의 대의(大意)에서 '경상국립대의 심벌마크는 문화사적 의미와 공시대적 지향점을 융합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로고 타입, 시그니처, 엠블럼, 어슬리티 마크, 전용색상, 색상 활용, 지정 서체, 그래픽 모티프, 마스코트(상징동물), 패턴, 아이콘, 단과대학별 색상체계 등을 모두 확정했다.

경상국립대 상징동물은 '공룡'이다. 공룡을 형상화하여 제작한 마스코트는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했다. 공룡의 이마 위에는 알에서 깨어나는 아기공룡이 있는데, 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끊기지 않는 대학과 학문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깜찍한 이미지의 공룡 마스코트는 특히 20대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s finally determined its new symbol (VI: Visual Identity) and mascot. Since the integration in March 2021, GNU internally reestablished its identity, strengthened the community spirit of its members, and then made the new symbol and the mascot. These rebranding efforts aim to maximize its public relations through a unique image. The concept of the symbol is the "Great" and reinforces the identity of the "Representative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Korea in Gyeongnam Province." In addition, the core values speak of the "University that Challenges and Pioneers

for the Future (Pioneer);" the "Representative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Korea in Gyeongnam Province (Great);" and the "University that Creates the New Future with the Integration (Integration)." GNU declared the Great Meaning of its new symbol as a testament to its effort to "integrate the cultural-historical meaning with the contemporary goal to take a leap into the future," The university has also finally determined the logo-type, signature, emblem, authority mark, exclusive color and application, designated typeface, graphic motif, mascot (symbolic animal), pattern, icon, and color system for each of its schools. GNU's symbolic animal is a "dinosaur," and its dinosaur mascot has a lovely and friendly demeanor, as seen in a baby dinosaur that just came out of the egg and placed on the parent's forehead. The university designed the mascot to symbolize the eternal linkage between the university and its studies. This charming and cuddly mascot is especially attracting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 their 20s.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부산대학교



국제 최고 학술지 『네이처』 논문 잇따라 2건 게재 부산대학교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 인정

Two Papers Published Successively in Top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Nature
PNU's 'World-Class Research Competency' Recognized



왼쪽부터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정세영 교수와 김수재 연구원, 악셀 팀머만 교수
From left to right: Professor Se-Young Jeong, Researcher Su Jae Kim, and Professor Axel Timmermann who published a thesis in *Nature*

부산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3월과 4월호에 잇따라 논문 2건을 게재했다.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세영 교수팀이 발표한 구리산화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 논문이 『네이처』 3월 17일자에 소개된 데 이어, 부산대 IBS 기후물리 연구단 (ICCP, IBS Center for Climate Physics)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교수팀이 기후 변화와 인류 진화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도 『네이처』 4월 14일자에 게재됐다. 정세영 교수팀은 한 층인 단원자층 수준의 거칠기를 가진 초평탄 구리박막을 이용해 구리의 산화 작동 원리를 이론과 실험에서 세계 처음으로 밝혀냈다. 산소의 진입 경로를 규명해 산소 스스로 산화를 막는 박막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나노 회로 등의 금을 구리박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팀머만 교수팀은 독일-스위스와 함께 기후모델링, 인류학, 생태학 전문가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인류 진화에 미친 근본적인 영향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

초과학연구원(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역대 가장 오랜 시점인 200만 년 전 기후까지 분석해 냈다. 팀머만 교수는 “현 인류가 지금의 우리일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과거 기후의 느린 변화에 수천 년 이상 적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n recognition of its outstanding research capabil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nnounced that two papers were published successively in the March and April issues of *Nature*, the world's most prestigious academic journal. The world's first research paper, which identifies the principles of copper oxidation at the atomic level, by Professor Se-Young Jeong's team at PNU's Department of Optics and Mechatronics Engineering, was published on March 17 in *Nature*. And a paper, which investigates the link between climate shifts and human evolution, by Professor Axel Timmermann's research team at the IBS(Institute for Basic Science) Center for Climate Physics (ICCP), was published in the April 14th issue of *Nature*.

Professor Se-Young Jeong's team revealed the principle of copper oxidation using ultra-fat copper surfaces with a roughness equivalent to single atoms in experiment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a thin film technology that prevents oxidation by itself by identifying the path of oxygen entry. This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the potential to completely replace gold with copper in applications such as nano circuits. Professor Timmermann and researchers, along with colleagues in Germany and Switzerland, incorporated experts in climate modeling, anthropology, and ecology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impact of climate shifts on various aspects of human evolution. In this study, the IBS supercomputer *Aleph* analyzed climate changes over the past 2 million years ago. This is the longest study of its kind to-date. Professor Timmermann said, “The reason modern humans could be what we are today is because we have adapted to slow changes in the past climate for more than thousands of years.”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v>



학생 맞춤형 열린학습공간·틈새학습공간 조성 ‘학생이 행복한 대학’ 부산대학교

Creating *Open Learning Spaces* and *Niche Learning Spaces* Tailored to Students
PNU, University Where Students Are Happy

국립대 최초로 학생 1인당 교육비 2,000만 원을 돌파한 부산대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쉽게 틈새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형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부산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휴식과 학습, 소통과 협업이 공존하는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열린 학습공간’을 선보인다. 교내 카페 ‘운죽정’을 정비해 비교과 프로그램 및 각종 공연·전시 가능하도록 하고, 야외 생태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학습공간으로 ‘진리의 뜰’을 새로 마련해 개소했다. 또한, 점심시간-공강 등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습·토론하고 개인과제나 수업 대기를 할 수 있는 ‘틈새학습공간’을 부산-양산-밀양 캠퍼스 12개소에 조성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틈새학습공간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기존 강의실 형태가 아닌 개방형 학습·휴게공간, 토의·그룹형 학습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in the country to surpass 20 million won in educational funding per student, will provide futuristic learning spaces where students can learn and study using their spare time anytime, anywhere as we head into the post-COVID 19 era. PNU will present an innovative student-centered ‘*Open Learning Space*’, where relaxation, learn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oexist, for the new semester in March. The campus cafe ‘Unjuk-jeong’ has been renovated to enable non-curricular programs and variou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a new ‘*Court of Truth*’ has been opened as a learning space for outdoor ecological education and online and offline convergence education. In addition, new 12 ‘*Niche Learning Spaces*’, where students can get together

to study and discuss, work individually, or wait before classes, at lunchtime or during breaks between classes, have been created in Busan, Yangsan, and Miryang campuses. They have gained immediate popularity. The ‘*Niche Learning Spaces*’ make use of under-utilized buildings as open learning/relaxing spaces, and discussion/group learning spaces, rather than conventional classrooms to better fulfill the needs of students.

왼쪽부터 열린학습공간, 틈새학습공간
From left to right: *Open Learning Spaces* and *Niche Learning Spaces*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 SNS • [instagram.com/snu.official](https://www.instagram.com/snu.official) • [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https://www.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다 :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Presenting a Vision for the Community : SNU opens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병연)은 지난 2월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국가전략위원회의 성격을 확대·개편해 탄생한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사회 비전을 모색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병연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연구 클러스터를 통해 비당파적, 융복합적, 증거기반적 정책 연구를 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민주주의, 팬데믹 위기, 과학기술의 미래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에서는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질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전략을 수립한다. 또 미래 생존과 번영의 핵심역사인 과학기술을 글로벌 안보동맹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서울대 안팎의 연구센터와 연구소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새로운 연구결과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정치적 이상으로 정착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글로벌 팬데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대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미래>에서는 앞으로 10~20년 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고유의 위치를 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사회적 역량은 어떠한지 고민해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여러 학문 단위의 학술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각 클러스터의 연구 내용을 알리는 발표와 강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3년 단위로 보고서를 출판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다학제간 연구를 통한 국가 전략 수립

서울대학교는 2016년부터 국가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의 주요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2019년 8월에는 국가전략위원회가 출범해 국가정책포럼이 담당하던 공론장 역할을 넘어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을 수행하며, 학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함께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 같은 국가전략위원회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확대해 공동체의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과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연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적인 정책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현재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글로벌 팬데믹>, <과학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5개 연구 클러스터가 구성돼 있으며, 각각 정치외교학부 손인주, 경제학부 이철희, 정치외교학부 유홍림, 의학과 임재준, 응용공학학과 이정동 교수가 클러스터 대표를 맡고 있다.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Director Byung-Yeon Kim) has commenced its activities in earnest after holding its opening ceremony in February.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was established by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National Strategy Commission. The institute plans to seek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visions and present policy directions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in diverse fields.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ies Through Multidisciplinary Research

Since 2016,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discussed major social policy tasks and directions through the National Policy Forum. The National Strategy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ugust 2019 to serve as a think tank in addition to its role as a public forum managed by the National Policy Forum, and the commission has suggested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research institutes.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follows the National Strategy Commission's directions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s prospects and strategies by growing as a more systematic and stable organization.

“We will conduct nonpartisan, convergent, and evidence-based policy research through research clusters,” stated Byung-Yeon Kim,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He added, “We plan to focus primarily on the changes in world order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low birth rates and the aging population, democracy, the pandemic crisis, and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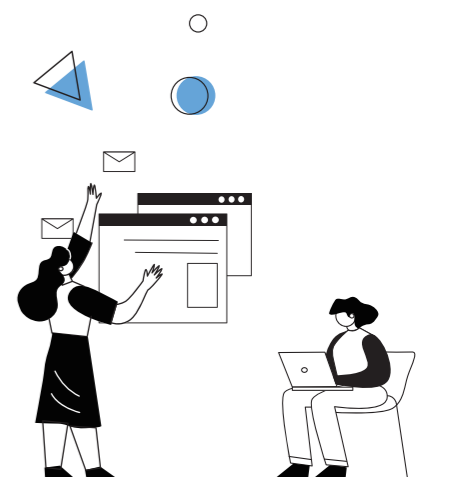
The Five Key Tasks for the Future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plans to engage in cor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sues, focusing on research clusters that are fluidly constructed according to research tasks. Currently, the institute has formed five research clusters under the themes of <Changes in world order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Population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Democratic crisis>, <Global pandemic>, and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are represented by the professors Sohn In-jo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ee Chulhee (Department of Economics), Ryu Hongl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im Jae-Joon (College of Medicine), and Lee Jeong-Dong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respectively.

First, <Changes in world order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establish strateg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reorganization of world order external to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reborn as a global powerhouse in the 21st century. This research cluster will also focus on science and technology—the key to future survival and prosperity—from the perspective of a global security alliance. Second, <Population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will focus on conducting the basic research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respond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issues. The aim will be to develop a network between researchers and research centers both inside and outsid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share and promote new re-

search results and ideas. Third, <Democratic crisis> will fundamentally reflect on and seek innovative measures for the future of democracy which has settled as a way of life and a political ideal. Fourth, <Global pandemic> will identify the problems faced by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COVID-19, and experts will discuss these problems from various perspectives. Fifth,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aims to contemplate what technologies will allow Korea to occupy a uniqu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n to twenty years into the future and what social capabilities it possesses in this regard.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aims to share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various academic fields with society. Accordingly, it plans to regularly hold presentations, lectures, and discussions to inform each cluster's research contents and publish and release reports to the public every two to three years.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기부 행렬 이어져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 기부금 약 20억 원 돌파

CNU's 70th Anniversary with Alumni Donations: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Collects 2 Billion KRW
Alumni participation continues in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which was designed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CNU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위드모아 CNU Friends」에 동문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위드모아 CNU Friends」는 영어 표현 'with more'를 활용한 명칭으로 전남대를 사랑하는 대학 구성원, 동문, 지역민이 "함께(with) 힘을 모아(more) 전남대학교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은 선(先) 기부자가 후(後) 기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1,000원부터 기부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기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현재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기부에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라 2개월 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전남대는 기부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하여 실시함

으로써 70번째 생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대학발전을 위한 모금 활동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개교 70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conducting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to raise university development funds since last March,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With More CNU Friends" aims to work "with" university members, alumni, and local residents who love CNU to invest "More" efforts to prepare for the next 100 years of CNU.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has two types of donation methods: one is the relay type, in which the first donor nominates the next one to do-

nate, and the other is a simple mobile donation type where you can easily donate any amount starting from 1,000 KRW any time, anywhere through mobile payment. Currently, relay-based donations are attract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umni and have raised approximately 2 billion KRW over two months.

CNU will provide a variety of benefits to donation participants and conduct a participatory event worth remembering, creating a place where everyone can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CNU together.

President Jung said, "This campaign is a fundraising activ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contains the meaning of sharing the value with the local community. Welcoming the 70th anniversary, we will be reborn as a university that can coexist with the local community."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CNU's Programs for Its 70th Anniversary with Local Communities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진리'로 이끈 70년, 창조로 이끌 100년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대는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각종 기념 사업 및 전시,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reusable cup)에 커피와 음료를 담아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차 이벤트 및 에코캠퍼스 캠페인 행사를 동시 진행해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는 각 단과대학 및 기관들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고 향후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남대 100년,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전남대 70년을 살피다' 등 각종 편찬사업도 추진 중이다.

5월 중에는 '역사와 함께 한 대학지성의 목소리 70년展' 전시가 광주시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월 9일 개교기념식 이후에도 역대 총학생회장단 초청 '홈 커밍데이' 행사를 비롯해 '용봉가족가요제', '농심고(근북) 및 태고루 복원사업' 등의 기념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Welcoming its 70th anniversary, CNU selected the catchphrase "70 Years by Truth, 100 Years by Creation" as well as it has planned to hold various commemorative events.

Change N Uni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jnu.ac.kr SNS • [instagram.com/chonnam_univ/](https://www.instagram.com/chonnam_univ/) • [youtube.com/yesCNU](https://www.youtube.com/yesCNU)



전남대 안영근 교수 연구팀, 허혈성심부전 치료 국책연구 110억원 수주 ‘2022 심혈관재생연구 심포지엄’ 통해 연구 착수

CNU Professor AhnYoung-keun's Research Team Selected for 110 Billion KRW of National Research Funds for Heart Failure Treatment
The Team Will Initiate the Research with the 2022 Cardiovascular Regeneration Research Symposium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영근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2년 제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차세대바이오 사회밀착형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안영근 교수 연구팀은 '마이하트 플랫폼 기반 심부전 제어 및 치료기술 개발연구'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총 1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안영근 교수는 "허혈성심부전 치료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했지만 심부전 위험인자 증가와 고령화로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에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조기예측 알고리즘 개발은 물론 환자맞춤형 예방 및 최적치료를 위한 마이하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CNU Professor Ahn Young-keun's research team (College of Medicine) was selected for the Next-Generation Bio Project for Tailored Support of the 2022 Bio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ccording to CNU, Professor Ahn's research team applied for the first-round project of the 2022 Bio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with a research proposal, entitled MyHeart Platform-Based Heart Failure Control and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Chosen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Professor Ahn's team will receive a total of 11 billion KRW from April 2022 to December 2026.

According to the research team, ischemic heart failure, in which cardiac func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not only a major cause of death worldwide, but also emerging as a major threat to general health condition and longevity. Although various therapeutic agents and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undamental research is urgently needed, as a large number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do

not see any therapeutic effects.

Professor Ahn said, "Although the treatment method for ischemic heart failure has developed significantly, we need More exact data due to the increase in dangerous factors for heart failur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hat has increased. We will develop the MyHeart platform for patient-specific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effective treatments and further put MyHeart technology into practical use as a strategy for early detection based on the medical data of patients."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QS 학문 분야 평가 11개 세계 순위권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anked 11th in the world rankings as per QS academic field evaluation

전북대학교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2년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5개 대주제 분야 중 2개 분야, 51개 세부 학문 분야 중 11개 분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QS 아시아대학평가와 세계대학평가에서 연이어 국가 거점국립대 2위에 오른 이후 대학 경쟁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개 대주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450위권이었던 자연과학 분야가 384위에 랭크되며 순위가 크게 올랐고, 공학/기술 대주제 분야는 400위권에 오르며 지난해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또한 전북대는 세부 학문 분야 평가 중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임학 분야에서 세계 200위권 초반에 오르며 국내 4위에 랭크됐고, 재료과학 분야 역시 세계 200위권 초반, 국내 9위에 오르는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난해 세계 300위권이었던 화학공학 분야에서는 200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1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기계/항공/제조공학 국내 10위, 생명과학 국내 11위, 환경과학 국내 12위, 화학 국내 13위, 물리/천문학 국내 13위 등 지난해 보다 최대 6단계 상승하며 학문 분야별 경쟁력을 자랑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세계 순위권 밖이었던 환경과학과 컴퓨터&정보과학 분야(국내 17위)는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번에 평가된 전체 51개 세부 학문 분야 중 전북대는 총 11개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진입해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도 2019년 8개 순위권 진입에서 작년과 재작년 9개에 이어 올해 11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영국 QS사가 전 세계 1,54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과 기업계 평판, 논문당 인용수,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H-인덱스'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In the '2022 QS World University Academic Field Evaluation' recently announced by QS (Quacquarelli symonds), a British university evaluation agenc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DongWon Kim) announced two out of five major subjects and 11 out of 51 detailed academic fields have been shown to be excellent worldwide. It is analyz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has continued to rise after being ranked second in the QS Asian University Rankings and World University Rankings last year.

In the five major categories, the natural science sector, which was ranked 450th last year, rose sharply to 384th, while the engineering/technology major sector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전북대학교의 '두뇌' 새 대학 본부 개관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new headquarter, 'brainchild' open



전북대학교의 두뇌 역할을 할 대학 본부가 1년 8개월여의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4월 20일 대학 본부 앞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전북대 대학 본부는 국비 등 총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돼 별관동 2,540㎡ 증축을 포함해 연면적 9,258㎡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섰다. 2020년 5월 착공해 올 초 완공됐다.

새로운 대학 본부에는 총무과를 비롯한 대학 행정 전반을 이끄는 주요 부서들이 자리해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의 전북대 발전을 이끈다.

전주MBC 정진형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관식 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김동원 총장의 기념사와 함께 본부 앞에서 기념비 제막식이 이어졌다.

또한 행사 이후에는 참석자들 모두 대학 본부를 돌아보고, 리셉션을 통해 축하와 감사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The university headquarters, which will serve as the brainchild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d an opening ceremony in front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on April 20th after completing the extension and remodeling work of 1 year and 8

month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adquarters was built on a total floor area of 9,258m², including an extension of 2,540m² in the annex building, with one basement floor and eight above-ground floors,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15.4 b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funds. Construction began in May 2020 and was completed early this year.

In the new university headquarters, major departments leading overall university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re located, leading the development of a fruitful university and warm companionship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opening ceremony, which started with Jeonju MBC announcer Jeong Jinhung, was held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with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a commemorative speech by President Kim Dong Won.

In addition, after the event, all the attendees looked around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nd there was a place to celebrate and thank them at the reception.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움을 향한 도약 제주대학교



미국특허 받은 세계 첫 치매돼지 생산기술 기술이전...치료제 개발 기반 마련 The World's First Technology Transfer of Dementia Pig Production to U.S. Paten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제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정보학과 박세필 교수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인간 치매유발 유전자 3개(APP, PS1 및 Tau)가 발현되는 치매복제 돼지 생산 관련 미국특허기술(US 10,306,873 B2)'이 관련 기업체인 ㈜미래셀바이오에 기술이전 됐다. 이 성과물은 인간치매 유발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이다. 박세필 교수는 "이번 기업체로 이전되는 기술의 확대발전은 치매 원인규명과 신약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특허 기술 가치 평가는 예상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추정치를 적용했을 때 향후 기술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024년부터 9년간 매출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The technology of producing dementia cloned pigs that express three human dementia-inducing genes(APP, PS1, Tau) developed by Se-Pill Park,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Bio Medical Informatic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received U.S. patent technology(US 10,306,873 B2) has been transferred to Mirae Cell Bio, a related company. This achievement is a state-of-the-art biotechnology that produces cloned pigs that cause human dementia. Professor Se-Pill Park said, "The expansion of technology to be transferred to companies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turning point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mentia and developing new drugs."

This patent technology valuation was estimated to be 4.4 trillion won in sales for about nine years from 2024 based on the estimated market size, based on the time when the technology was completed in the future.



Jump to New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오홍식 교수팀, 한라산 서식 꽃사슴 아종(亞種) 최초 규명 Professor Hong-Shik Oh's team identifies two subspecies of sika deer in Hallasan of Jeju



오홍식 교수
Professor Hong-Shik Oh


제주대학교 생물교육전공 오홍식 교수 연구팀이 제주 한라산에는 '타이완꽃사슴'과 '일본야쿠시마꽃사슴' 두 종류의 아종(亞種)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동물연구 분야 국제저명학술지(SCIE) <Animals(2022년 4월호, 제1저자 Maniram Banjade, 박사후연구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서열 분석 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haplotype(동일한 염색체상에 매우 가깝게 연관된 유전자 자리에 위치한 여러 형질의 대립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세트)을 분석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의 다형성을 바탕으로 한라산 꽃사슴의 종을 밝혀냈다. 오홍식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야생생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 research team lead by Prof. Hong-Shik Oh, Department of Biologic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identified two subspecies of alien sika deer 'Cervus nippon yakushimae' and 'Cervus nippon taiouanus' in Hallasan Mountain, Jeju. The study was published in April 2022 issue of Animals (SCIE) in the field of animal research which was lead by Maniram Banjade,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fter genetic sequencing, the research team analyzed two haplotypes using CytB gene sequence and identified two subspecies of sika deer based on the polymorphism of the mitochondrial DNA gene. Professor Hong-Shik Oh sai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as valuable data in preparing wildlife management measures even suitable for native population"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총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일환 President Kim, Eel-hwa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d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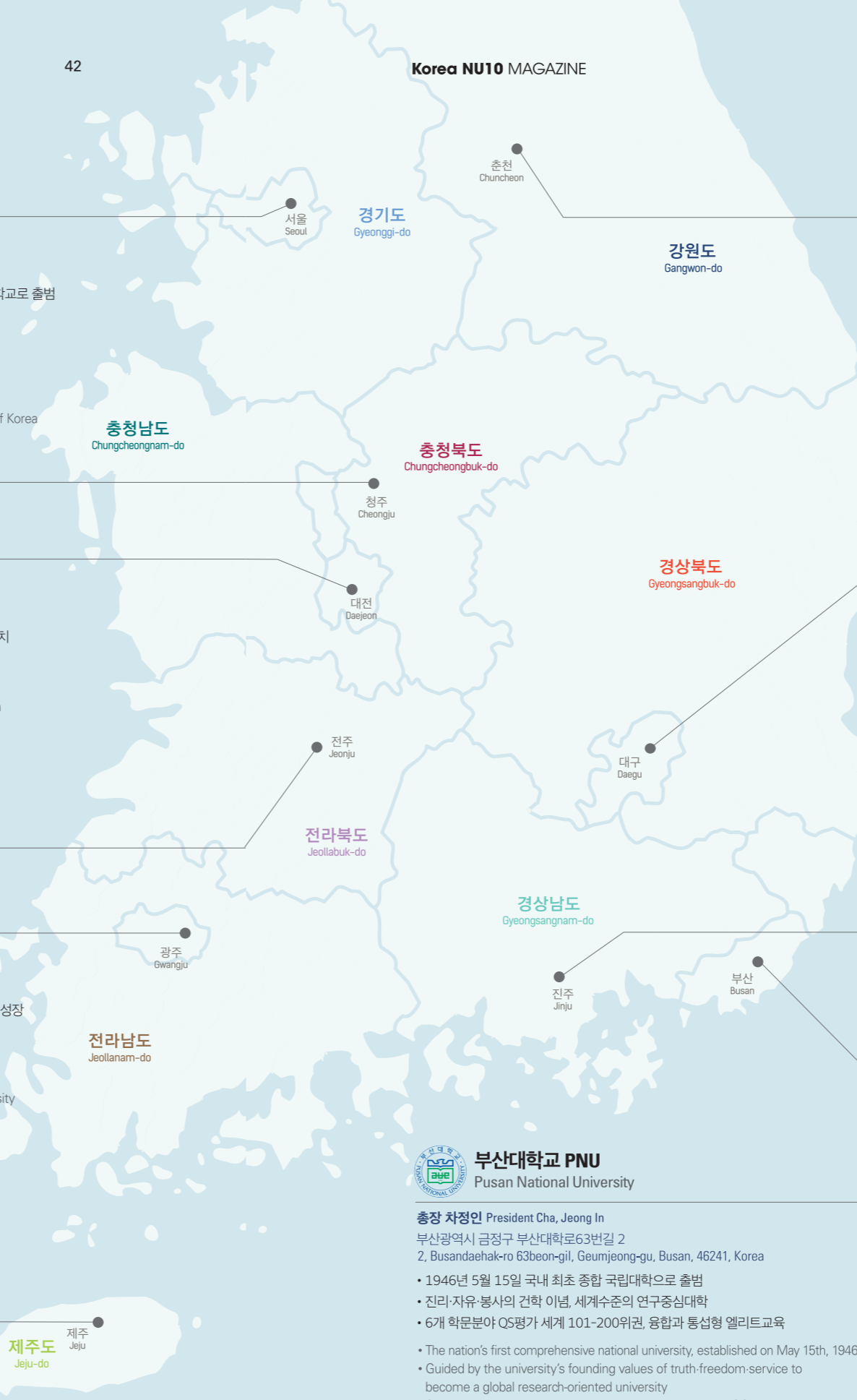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ae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입률 1위(2020년 고등교육기관 취입통계)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202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mployment Statistics)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공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침성인' 양성
-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세계 13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13th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전라북도 Jeollabuk-do**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